채식주의자

한강 저, 창비

저자 소개 : 한강(1970~)

작가 한강은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났고, 이후 서울로 올라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1993년 시인으로, 1994년 소설가로 등단하였다.

출판업계에 종사하다가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가 되어 후진 양성 활동도 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유명한 소설가 "한승원"이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몽고반점〉으로 제 29회 '이상문학상'을 받았으며, 2016년 맨부커상(Man Booker Prize)의 자매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았다. 이 상은 영어로 번역돼 영국에서 출간된 문학 책의 '작가'와 '번역가' 모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작가인 한강과 함께 영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공동 수상하였다.

멘부커상의 선정위원 5명은 만장일치로 〈채식주의자〉를 선정하였다. 선정위원회 주심을 맡은 영국의 문학평론가 보이드 톤킨은 "서정적이면서도 가슴을 찢는 스타일로 '극단적인 채식주의'라는 엄청난 거부가 여성 주인공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한 충격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 작가가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며, 아시아 작가 중에서도 처음이다.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은 2년에 한 번씩 수여된다.

내용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 등 3부로 구성된 연작 소설이다. 이 3 작품이 발표된 시점은 각기 다르며 2007년에 이 세 작품을 모아 단일권으로서 〈채식주의자〉를 발간하였다.

평범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욕망을 억누르고 인내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이

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의 내면이 현실로 터져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연작 소설' 이라는 틀이 말해주듯, 세 편의 이야기가 하나의 캔버스 위에서 그려진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인 '채식주의자'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면서 고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2번째 이야기인 '몽고반점'은 그 여자가 가진 몽고반점에 강렬한 끌림을 느끼는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인 '나무 불꽃'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싶었지만 인간으로서 파멸하는 두 사람을 지켜보는 한 여자의 이야기이다.

동일한 장면을 하나는 주인공인 영혜 남편의 시선으로, 또 다른 하나는 형부의 시선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언니의 시선으로 기억하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좋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했다고도 한다. 이 책은 아프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기도 한다. 분출된 욕망과 억압된 욕망의 충돌을 끝까지 몰고 간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임계점까지 독자를 끌고 가서는 마침내 폭발한다. 한강의 소설이 탐미주의적으로(그리고 그 이상으로) 읽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0년 영화로도 개봉되었다.